

트럼프 “쟁점합의” 발전소 폭격 유예...이란 “대화無”

호르무즈 개방 최후통첩 ‘48시간’ 시한 만료 앞 협상 개시 공개
트럼프 “이란·미국 모두 합의 위해...합의 타결 가능성 매우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3주 넘게 군사 충돌을 이어오던 미국과 이란이 협상에 나섰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협상 결과가 외교적 해결과 전쟁 확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자신들에 대한 공격 재발 방지 약속과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 측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이번 주 이란과의 대화가 계속될 것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발전소 등 공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란에 ‘48시간’ 시한을 제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시한 만료일인 이날 협상 개시 사실을 공개하며 공격 보류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플로리다 공항에서 지지들과 만나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스티브 워코프 중독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이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전날 저녁까지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란의 ‘핵 무기 포기’를 비롯해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번째”라며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이 직접 수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 상대가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조만간 대면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말했다.

미 온라인매체 약시오스는 이와 관련,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 측 협상 상대는 모즈타바 현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멤피스 안전 테스크포스 원탁회의’ 행사에서도 “결국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5일의 시간을 주기로 했고, 그 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선 “우린 이란과 오랫동안 협상해왔는데, 이번엔 그들은 진지하다(they mean business). 그리고 그건 오직 우리 군이 훌륭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우리는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의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 불안이 커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이번 전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강요된 전쟁이 계속된 지난 21일 동안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측 협상자로 거론됐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엑스(X)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었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트럼프의 후퇴”, “트럼프의 시간 벌기”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콜롬비아 푸투마요 주 푸에르토 레기사모에서 발생한 콜롬비아 군용기 추락 사고 현장에 군인들이 모여 있다. /REUTERS=연합뉴스

콜롬비아 군수송기 추락 사망자 66명으로 늘어

콜롬비아 군수송기 추락 사고 사망자 수가 66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 당국이 기체 잔해 속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면서 희생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고는 수송기가 페루 접경지이자 아마존 지역인 푸에르토 레기사모에서 군 병력을 이송하기 위해 이륙하던 도중 발생했다.

활주로 끝부분에서 기체에 충격이 가해졌고, 추락 과정에서 날개가 나무에 부딪힌 후 화재와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소방 당국 관계자는 추정했다.

사고 당시 수송기에는 육군 115명, 공군 11명, 경찰 2명 등 모두 12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별 집계에 따라 승선자 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수습에 매진하고 있으나 사고 지역

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인 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실종자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고 알레한드로 로페스 통합군 사령관은 “생존자 5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이 중 30명은 군 클리닉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콜롬비아 공군 역사상 최근 수십년간 가장 치명적인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자 열풍’ 중서 가격하락 투자주의보

상하이금거래소 “변동성 확대 유의”

금투자 열풍이 불었던 중국에서 금값 급락에 따른 위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중국 현지매체인 도시패보(都市快報)에 따르면 상하이금거래소는 전날 공지를 통해 최근 시장 불안정을 키우는 요인이 많아 귀금속 가격 변동성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위험 관리와 보유 비중 조절 등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다.

전날 중국의 금 가격은 장 초반 하락세를 이어가며 g당 1천위안(약 2만8천원)선이 무너졌고, 장 중 933위안(약 2만1천원) 부근에서 등락했다.

소매시장에서도 금 장신구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라오마오, 저우다푸, 류푸주바오, 차오홍지 등 유명 체인점은 한 때 g당 1천500위안을 웃돌던 가격을 모두 1천400위안 밑으로 내렸다.

국제 금값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데다 달러 강세까지 겹치며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은 통상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질수록 투자 매력도가 커지지만, 반대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강화되면 가격 상승에 압박이 생긴다.

중국인 준공공기관인 거래소를 통해 이례적으로 위험 관리를 강조한 것은 최근 금값 상승기에

개인자금이 대거 유입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시장 부진, 주식시장 변동성 등을 배경으로 금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가격이 급하게 오를 때 유입된 개인 투자자일수록 하락 국면에서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에만 중국 금 상장지수펀드(ETF)로 역대 두 번째로 큰 440억위안(약 9조5천800억원)이 유입됐다.

같은 달 중국 금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3천330억위안(약 72조5천억원), 보유량은 286t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내 금 시장은 선물·현물 투자뿐 아니라 장신구 소비 수요와도 긴밀히 연결돼 있어, 국제 시세 급락은 투자심리 위축과 소비가격 조정을 동시에 불러오는 특징이 있다. /연합뉴스

美 국방부, 언론통제 법원 제동걸리자 기사실 폐쇄 시도

미국 국방부가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하려던 시도가 법원 판결로 가로막히자 기사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손 파벨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방부 내 기사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그는 국방부 본관 건물 밖에 새로운 기사실을 마련하고, 본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국방부의 새 언론통제법 시행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나왔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이번호
220603-중-139779